

로마서 7:14 – 7:25 율법과 죄의 관계

14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6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17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18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0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 14 절부터 25 절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요약하면 크리스찬의 내면에 있는 불협화음 또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죄 사이의 갈등이 이 구절들에서 보입니다.
- 오늘 다루는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반된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 ‘나’ 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견해와 반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견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장은 사도 바울이 믿기전의 상태를 염두에 적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14, 18, 23, 24 절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육정에 매인 존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있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말들은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8 장의 내용으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구절들이 현재 시제로 적혀 있어서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4, 16 절에서 율법이 선하다고 하고, 22 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한다고 하며, 25 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똑같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그런데 5 장 이후에서 특히 6 장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겪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죄아래에서 살았던 모습들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에서 '나' 라는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Already But Not Yet)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5-17 절에서, 죄짓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이끄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잡은 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7 절은 기본적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컨트롤 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18-19 절은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의지와는 반대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20 절은 책임 회피의 말로 들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죄짓기 싫은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고 말았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게 하는 구절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1-23 절에서 헬라말 원문을 보면 '법 (Nomos)' 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21 절에서는 법칙이란 말로 번역되었고, 22 절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법으로 해석되었고, 23 절에서는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서 '법' 이란 말 대신에 '힘'이나 '권세'로 바꾸어 읽으면 의미가 더 잘 통할 수 있습니다.
- 23 절에서 '내 마음의 법' 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법' 또는 '죄의 법' 이란 말은 내 안에서 죄에 끌리고,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4 절과 25 절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 줄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5 절의 마지막 부분은 15 절부터 24 절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개의 법이 공존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성화의 단계를 따라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